

영어 초점 구문에 나타나는 초점 발화의 음향 음성적 특성 비교 연구:  
미국인 화자와 한국인 화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nglish and Korean Speakers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Focus Realization in English Focus Sentences

김 기 호\*\*  
Kee-Ho Kim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previous theories on English focus realization and attempts to find out the overall acoustic characteristics of English focus. It has been argued in previous studies that English focus can be defined as a new information that is not recoverable from the context (Halliday 1967), a complementary element of presupposition (Jackendoff 1972), and what is predicated about the topic in a sentence (Sgall 1973, Gundel 1974). The phonetic realization of English focus in an utterance has been said to be either L+H\*/H\*, or falling accent. Yet it is a more or less simplified pattern not based on real data obtained from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it does not consider the various pragmatic and contextual situations. In our experiments we found that native speakers uttered English focus sentences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different focus structure. Another notable result is that Korean speakers, when provided with the same experimental material, are neither able to distinguish different focus types nor deaccent the elements that are not focused in an utterance.

**Keywords:** Focus, New Information, Intonation, Pitch Accent, Deaccentuation

1. 서 론

하나의 발화 내에서 모든 단어가 동일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정보성을 갖고 있다. Halliday(1967)는 이와 같이 담화 내에서 더 많은 정보성을 지닌 것을 '초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이후 초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첫째, 초점은 문맥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요소를 가리킨다. 초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한 Halliday(1967)에 따르면, 초점이란 담화내의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로서 이전 담화 문맥으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KRF-2003-A00438)으로 제 14 회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대회(2003. 11. 15)에서 일부 발표된 바 있음.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로부터 복구할 수 없는 정보를 가리킨다.

둘째, 초점은 전제(presupposition)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Jackendoff(1972)는 담화문맥에서 이루어지는 발화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나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 공유된 정보가 전제이고 이에 상보적으로 대응되는 비전제(non-presupposed), 즉 공유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정보가 초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셋째, 초점은 화제(topic)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Sgall(1973)과 Gundel(1974)에 따르면, 하나의 발화는 문맥상 화제와 초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화제는 흔히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인 반면, 초점은 발화에서 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화제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는 것(what is predicated about the topic)’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이 초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지만, 공통적인 것은 초점이 담화 문맥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전제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영어의 초점에 대한 연구는 문장의 음성적 구현보다는 통사적·구조적·의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연구(Halliday 1967, Chomsky & Halle 1968, Bresnan 1971)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실제 억양 실현 양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후, Bolinger(1989)와 Cruttenden(1986)에 의해 초점과 억양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이론은 초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액센트에 의해 드러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는 실험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규명된 이론이 아니라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원어민의 실제 발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점이 억양으로 구현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확히 반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발화되는 초점의 음운·음성적 특성을 알아보고, 기존 이론들과 실제 억양 양상이 어떠한 면에서 부합하고 어떠한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초점의 종류

### 2.1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

의미 초점(semantic focus)이란 주로 의문사 의문문(wh-question)에 대한 대답의 일부가 되는 요소로서, 화제, 전제, 배경과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을 포괄한다. 즉, 화자와 청자가 문맥에서 미리 공유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의미 초점이라 일컫는다(Cutler and Fodor 1979, Gundel 1999). 이에 반해,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이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다른 요소와 대조되고 있을 때(Gundel 1999)의 의미적, 청각적 돌출됨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 발화를 수정하는 요소에 초점이 오거나, 어떤 문장 성분이 대체물과 대조를 이루면 일반적으로 대조 초점을 받는다. 대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떤 항목의 잠재적인 가치를 이미 어느 정도 맥락화해주기 때문에 대조 초점은 의미 초점보다 덜 새롭게 느껴지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체물의 존재가 대조 초점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bad’라는 성분이 있을 경우 ‘good’의 존재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bad’라는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good’의 존재

는 더욱 많은 주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체물에 의해 한 문장 성분이 대조될 때 나타나는 들뜸이 바로 대조 초점이다.

## 2.2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

협의 초점(narrow focus)과 광의 초점(broad focus)은 초점을 받는 구성성분의 크기에 관련된 개념이다. 협의 초점이란 문장의 개별 단어 단위에 주어지는 초점으로서, 주로 문장의 특정 구성성분(constituent)이 대조되고 있어 초점의 해당 범위가 하나의 단어에 국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대조 초점은 주로 협의 초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초점의 영역이 좁을수록 가능한 대체물의 집합이 작아지고 따라서 대조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광의 초점은 초점을 받는 요소가 단어 하나에 한정되지 않으며 구(phrase)나 문장 전체에 초점이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광의 초점의 경우 초점에 해당하는 각각의 어휘 항목이 모두 액센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광의 초점은 개별 초점 단어가 액센트로 실현되는 협의 초점과는 달리 초점과 액센트 사이에 항상 직접적인 상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은 초점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액센트 분포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호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 (1)의 예는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간의 이러한 모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1) Reporter: Why do you [rob bank]?

Dillinger: Because there's where the money is. (Ladd 1996: 200)

(1)은 한 은행 강도와 기자 사이에 실제 있었던 대화이다. 기자가 질문한 본래의 의도는 '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은행을 터는 일을 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즉, 동사구 'rob bank' 전체가 광의 초점을 갖는 문맥이다. 하지만 위의 문맥에서 액센트는 동사구 내의 가장 오른쪽 단어인 'bank'에 놓인다. 이 경우, 'Why do you rob [bank]?'와 같이 'bank' 자체에만 협의 초점이 오는 질문, 즉 '왜 상점이나 다른 곳이 아닌 은행을 털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들리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하여 은행 강도는 '은행이 바로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재치 있게 질문에 대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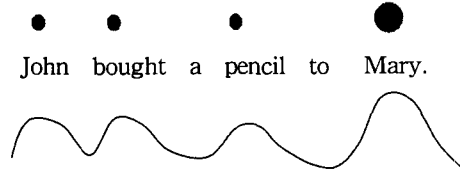
이처럼 광의 초점은 협의 초점과는 달리 초점과 액센트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호성이 유발되며, 광의 초점에서 액센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 3. 초점과 억양에 관한 선행연구

초점과 억양의 연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Chomsky and Halle(1968)는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영어 중립문장의 강세 규칙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영어의 핵강세규칙(NSR: nuclear stress rule)에서는 강세 부여를 순수하게 통사적인 규칙으로

기술하고자 하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초점을 따로 받지 않는 모든 영어의 중립 문장은 가장 오른쪽 쪽에 오는 내용어의 강세 음절이 성조음절(tonic syllable)이 되면서 주강세를 받게 된다. 다음 (2)의 예문을 살펴보자.

(2)



위 (2)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John' 'bought' 'pencil' 'Mary'는 모두 내용어로서 강세를 받는다. 이와 같이 내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 문장 강세는 문장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내용어의 'Mary'의 강세 음절에 놓이게 된다.

한편, 중립문장과는 달리 문장의 특정 요소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초점이 되는 성분을 보다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a. A: What did John buy to Mary?

B: John bought a pencil to Mary.



b. A: Who bought a pencil to Mary?

B: John bought a pencil to Mary.



(3a) 문장의 경우, 질문의 초점이 'what', 즉 '산 물건'에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에서는 'pencil'에 강세를 두어 발화하게 되고, (3b) 문장의 경우 'who'에 초점이 오기 때문에 질문의 초점인 'John'을 강하게 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영어 문장 강세를 통사적 규칙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영어 억양에서는 이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일정한 강세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생성문법적 관점에서는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의미적·화용적 요소의 개입을 대조 강세라고 명명하고 단순히 예외적인 패턴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초점을 자신들의 강세 이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생성문법학자들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양 패턴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 그 이론적 한계가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생성문법학자들과 달리 Bolinger(1972, 1985)는 담화 문맥이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초점이 결정

된다는 급진적 초점화 액센트 이론(Radical Focus-to-Accent Theory)으로 초점과 영어 억양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급진적 초점화 액센트 이론에서는, 초점 받은 구성소 내에서의 액센트 분포가 그 구성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용적 요소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초점의 분포와 액센트 분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문장 내의 한 요소가 액센트를 받으면 그 요소는 초점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초점이 되는 요소에는 액센트가 주어진다고 본다. 특히 Bolinger는 초점의 의미적인 면을 강조하여 모든 액센트는 화자가 그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며, 피치 액센트가 위치하는 단어가 곧 초점이 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급진적 초점화 액센트 이론에서는 구조 중심 초점화 액센트 이론과는 달리 한 구절이나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광의 초점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즉, 광의 초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액센트는 의미적으로 보다 중요한 단어에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4)의 예문을 살펴보자.

- (4) He took a BATH.  
 a. He shaved and took a bath.  
 b. He didn't take a shower, he took a bath. (Ladd 1996)

(4)의 첫 번째 예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단어는 'bath'이며, 미국 영어에서 'bath'를 말하고자 할 때 'took'라는 동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4a)의 문맥에서와 같이 'took a bath' 전체가 초점을 받는 광의 초점인 경우에도 'bath'에만 액센트가 오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며, (4b)와 같이 'bath'만이 초점을 받는 협의 초점인 경우에도 'bath'만 액센트를 받게 된다. 이 두 경우에 모두 'bath'가 가장 정보성(informativeness)을 많이 포함하는 단어이므로 액센트에 의해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나게 된다. 위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급진적 초점화 액센트 이론에서는 어휘적인 의미나 세상 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보다 일반적인 정보성과, 협의 초점에서 나타나는 정보성 사이에 큰 구분을 두지 않는다. Bolinger의 이론은 생성문법적 이론보다 좀 더 많은 예를 설명할 수 있고 초점과 액센트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나, 실험에 기반 하지 않은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 4. 초점의 억양상의 특징: 원어민과 한국인의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초점과 이의 구체적인 억양 실현 양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원어민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일치하지 않거나, 주로 직관에 의존한 연구로서 실제 발화 실험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영어 원어민들의 실제 초점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초점의 음성적, 음운적 특징을 연구한 최근 필자의 연구팀에 의한 실험 연구를 소개하고, 실험에 나타난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의 특징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실험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원어민과 한국어의 영어 초점 발화를 비교·분석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인의 영어 억양 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 4.1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

앞서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 초점은 주로 문장 내에서 wh-의문문의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며, 대조 초점은 문맥상에서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다른 성분과 대조를 이루거나 (Gundel 1999), 선행 발화를 수정하는 요소에 초점이 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의 예문 (5)는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을 이끌어 내도록 문맥을 제시한 것이다.

- (5) a. A: What did the man give to his fiancée?  
 B: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ée.  
 b. A: Did the man give an emerald to his fiancée?  
 B: No.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ée. (강선미 외 2003)

(5a)의 문맥은 전형적인 의미 초점 문장을 보여주는 예로서, 질문 대상인 'what'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diamond'가 이 발화에서 의미 초점에 해당하며, (5b)는 'emerald'를 준 것이 아니라 'diamond'를 주었다고 발화함으로써 'diamond'를 대조 초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경우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 모두 H\* 피치 액센트나 L+H\*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실현 비율은 의미 초점일 경우와 대조 초점일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필자의 연구팀(강선미 외 2003)에서 시행한 원어민 화자의 발화 실험 결과, (5a)와 같은 의미 초점에서는 H\*의 실현 비율(73%)이 L+H\*(25.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5b)와 같은 대조 초점의 발화에서는 의미 초점의 경우보다 L+H\* 피치 액센트(41.3%)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 경우에도 H\* 피치 액센트(57.9%)가 가장 높은 비율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은 일반적으로 H\*와 L+H\* 두 가지의 피치 액센트로 실현될 수 있으며, L+H\*는 의미 초점보다는 대조 초점에서 보다 많이 실현되는 억양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의 발화와 인식에서 피치 정점의 높이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의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 실험 연구에서는 우선 각각 기능어와 내용어로 제시된 문장 내의 한 성분이 대조 초점을 받는 경우, 이를 원어민과 한국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 (6)과 (7)의 예문은 발화 실험에 사용한 자료 중 일부이다.

- (6) a. My daughter's puppy died. (중립 문장)  
 b. A: I heard your daughter lost her puppy.  
 B: No, my daughter's puppy [died]<sub>F</sub>. (대조 문장)

- (7) a. A: How are you?  
 B: I am very sick. (중립 문장)  
 b. You always have some illness, but now [I]<sub>F</sub> am sick. (대조 문장)

(전지현 외 2002)

원어민의 실험 결과, 내용어나 기능어에 상관없이 중립 문장에서는 92.5%가 액센트로 실현되지 않

던 문장 성분들이 대조 초점을 받을 경우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거나 피치 정점을 높임으로써 100% 액센트를 부여받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화자들은 내용어에서 뿐 아니라, 특히 기능어 초점인 경우에 더욱 피치 액센트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점 단어에 실현되는 피치 정점을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원어민에게 들려주었을 때, 정점의 높이 변화에 따라 이를 어느 종류의 초점으로 인식하는지 그 인지도의 변화를 살펴기 위해 (8)과 같은 실험 문장으로 원어민에게 인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8) a. My daughter's puppy **d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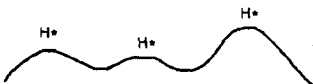
b. The knife is **on** the table. (전지현 외 2002)

(8a)와 (8b)는 각각 내용어인 'died'와 기능어인 'on'의 피치 정점 높이를 변화시킨 문장으로서, 200 Hz에서 380 Hz까지 피치 정점을 높이면서 원어민 피험자에게 들려주었다. 실험 결과, 원어민은 피치 정점이 상승함에 따라 중립 문장 → 의미 초점 → 대조 초점의 순서로 인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어민이 피치 정점의 높이를 초점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한국인 피험자에게 동일한 실험을 수행한 경우에, 200Hz부터 해당 단어가 대조 초점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원어민은 피치 정점의 상승이 있는 구간에서 대조 초점으로 인식한 것과 달리 한국인은 본 실험의 최고 피치 정점(380Hz)까지 변화시켜도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을 별개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

협의 초점은 2.2에서 언급했듯이, 문맥상 문장에서 단어 단위의 특정 문장 구성성분(constituent)이 두드러지게 되어 초점의 해당 범위가 하나의 단어에 이르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협의의 초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조되는 어휘에 운율적 돌돌림이 실현되기 때문에 해당 어휘 항목에 H\* 피치 액센트가 실현되거나 L+H\* 피치 액센트가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 얻었다. 다음 (9)의 예문은 원어민의 발화에서 나타난 중립 문장과 초점 문장의 억양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9) a. Esther won the marath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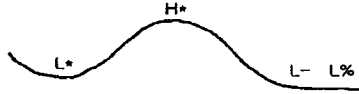
b. A: Who won the marathon?

B: [Esther] won the marathon.



c. A: What did Esther win?

B: She won [the marathon].



(엄혜영 외 2001)

(9a)는 'Esther won the marathon'이 초점이 없는 중립 문장으로 발화될 때의 억양 곡선을 보여준다. 이 때, 내용어 'Esther', 'won', 'marathon'에 모두 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며, 'marathon'의 강세음절은 성조음절로서 가장 높은 피치를 보인다. (9b)는 '누가 마라톤에서 이겼는가'라는 질문에서 '누구'에 해당하는 'Esther'가 대답의 초점이 되는 항목이며, 따라서 'Esther'라는 한 단어가 협의 초점이 되고, H\* 피치 액센트로 발화될 수 있다. (9c) 역시 협의 초점의 억양 곡선으로, 이 때는 'Esther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marathon'이 피치 액센트를 받는다. 이 경우에는 협의 초점이 L+H\*로 실현된 예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10)과 같은 광의 초점에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을 살펴보자. 광의 초점은 문맥에서 주어지는 초점의 영역이 하나의 단어가 아닌 더 큰 문장성분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협의 초점과는 달리 초점과 액센트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광의 초점에서는 초점의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항목이 피치 액센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Selkirk(1984)와 Gussenhoven (1983)은 지금까지 통사 구조에 기반을 둔 초점 투사 이론을 통해 광의 초점에서 액센트와 초점의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는 통사 구조에 기초하여 액센트가 어떤 항목에 위치할 경우에 초점의 영역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거나, 초점의 영역에 포함된 표면적인 통사 구조 속에서 규칙에 따라 어떤 부분이 액센트로 실현될 것인가를 예측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들과 달리 Birch and Clifton (1995)은 액센트의 위치에 따라 의미의 모호성을 가져오는 광의 초점의 액센트 패턴을 정보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인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11) QA: Isn't Kerry pretty smart?

QB: Isn't Kerry good at math?

R1: Yes, she TEACHES MATH.

R2: Yes, she teaches MATH.

R3: Yes, she TEACHES math.

(11)의 예문은 R1, R2, R3 모두가 광의 초점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QA, QB와 같은 문맥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중 어떤 질문-대답쌍이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로 인식되는지 연구한 결과 QA에 대한 응답으로는 R1과 R2가 모두 가능하며, QB에 대한 응답으로는 R3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광의 초점 내 목적어가 구정보인 경우(QB), 동사에는 액센트가 실현되고 목적어는 액센트를 해지시키는 것(R3)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의 초점 내의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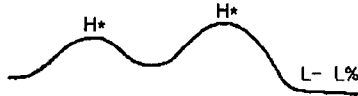


신정보인 경우는 동사와 목적어에 각각 액센트를 주거나 목적어에만 액센트를 부여하여 동사에까지 투사시키는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발화로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광의 초점의 경우, 술어가 초점을 받은 논항에 이웃하여 있으면 액센트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Gussenhoven(1992)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필자의 연구팀에서는 통사 구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하기보다는 실제로 광의 초점 발화가 음운·음성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a. A: How did Esther spend her Thanksgiving?

B: She [won the marathon].



b. A: Did Esther enjoy the marathon?

B: Yes, she [won the marathon].



(엄혜영 외 2001)

(12a)와 (12b)의 문맥은 모두 'won the marathon'이 질문에 대한 답의 초점이 되는 광의 초점의 억양 곡선을 나타낸다. (12a)에서는 Thanksgiving을 보낸 방법이 '마라톤에서 이겼다'에 해당하므로 'won the marathon'이라는 동사구 전체가 광의 초점의 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신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초점 투사 원리에 의하면 이 경우 액센트가 논항인 'marathon'에만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실험 결과, 논항에만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빈도수는 12%로 매우 낮았으며, 문맥상 새로운 정보인 동사와 목적어 모두에 피치 액센트가 분포하는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12b)에서 B의 발화 역시 'won the marathon'이라는 동사구 전체를 초점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목적어는 A의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구정보이고 동사만이 신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은 광의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에는 액센트가 분포하지 않으며 동사에만 H\* 혹은 L+H\* 피치 액센트가 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원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의 발화 실험 자료를 동일하게 한국인에게 제시한 경우, 한국인이 영어의 초점 구문을 실현하는 양상을 실험한 연구를 살펴보자.

(13) Esther won the marathon.

(14) a. A: Who won the marathon?

B: [**Esther**]<sub>F</sub> won the marathon.

- b. A: Esther saw the marathon?  
B: No, she [**won**]<sub>F</sub> the marathon.
- c. A: What did Esther win?  
B: She won [the **marathon**]<sub>F</sub>.
- d. A: How did Esther spend her Thanksgiving?  
B: She [**won the marathon**]<sub>F</sub>.
- e. A: Did Esther enjoy the marathon?  
B: Yes. She [**won the marathon**]<sub>F</sub>. (엄혜영 외 2001)

위에 제시된 예문은 (13)의 문장이 (14)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문맥으로 주어졌을 경우, 즉 협의 초점(14a~c)과 광의 초점(14d~e)의 형태로 화자에게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억양 실현 양상을 보기 위한 실험 자료의 일부이다. 앞서 살펴본 원어민의 발화 실험 결과와 달리, 한국인은 초점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에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맥에 맞는 억양 패턴으로 구현한 비율은 전체 23.9%에 지나지 않았다. 원어민 화자는 협의의 초점으로 제시된 (14a~c)의 문장에서 협의의 초점에 해당하는 단어에만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였고, (14e)의 예문과 같이 광의 초점을 받는 경우라도 광의 초점 내에 구정보('marathon')가 존재할 경우에는 액센트를 부여하지 않는 양상을 일관되게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인은 협의의 초점·광의 초점, 혹은 신정보·구정보에 상관없이 모든 내용에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결과를 보여, 원어민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인의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현상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지각 실험 자료의 일부이다.

(15) I baked these cookies.

- H\*            H\*
- Who baked these cookies?
  - You bought these cookies?
  - What did you bake?
  - What did you do yesterday?
  - Where did you get these cookies?

(15)에 제시된 첫 번째 문장은 'baked'와 'cookies'를 H\* 피치 액센트로 발화한 문장이며, 이를 한국인과 원어민에게 들려주고 이와 같은 대답에 적절한 질문의 형태를 그 아래 5 가지 보기 중에서 고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원어민은 들려준 문장의 억양 형태에 어울리는 질문 형태를 100%에 가깝게 적절히 선택할 수 있었으나, 한국인의 경우, 올바른 질문 형태를 고르는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발화 실험에서 한국인이 초점 구조에 적절한 억양 형태를 구현하지 못하고 모든 내용에 액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한 사실과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은 영어 발화시, 문장의 초점 구조에 따라 각각에 적절한 억양 패턴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초점 구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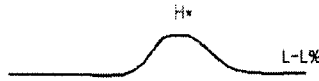
4.3 초점 발화에 나타난 액센트 해지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억양상의 특징 중 하나로 액센트 해지(deaccentu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액센트 해지란 문장 내에서 액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는 특정 구성성분의 액센트가 사라져 억양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액센트 해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 첫째, 앞선 담화 문맥상에서 이미 언급된 구정보, 즉 비초점인 경우,
- 둘째, 담화 내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상황적(situationally)으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
- 셋째, 의미적인 비중이 낮은 요소(low semantic weight)이거나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단어(empty words)인 경우,
- 넷째, 정보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섯째, 초점 다음에 위치하는 내용어인 경우

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김소희 외. 2002).

- (16) a. A: How about going to a movie?  
 B: It's okay, if it's a good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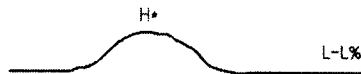


- b. A: What did you do last Sunday?  
 B: I saw a good movie.



위의 (16a)는 앞서 언급된 단어 'movie'가 반복되어 구정보로 발화되었기 때문에 초점이 되는 'good'은 H\*로 실현된 반면, 초점을 받지 않는 'movie'는 액센트가 해지된 것이다. (16b)는 동일하게 'good movie'가 초점을 받지만 새로운 정보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movie'에 H\*가 부여되었다.

- (17) a. (looking at the picture of B's mother)  
 A: Wow, she looks wonderful.  
 B: Yeah, I'm always proud of my m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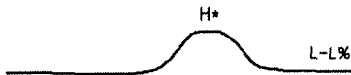


- b. A: Whom are you proud of the most?  
 B: I'm always proud of my m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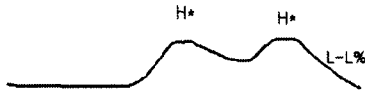


(17a)는 A와 B 화자 모두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맥상 'she'가 가리키는 정보가 'B's mother'라는 것을 복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mother'는 초점의 일부이지만 액센트 해지가 일어난다. 반면 (17b)는 상황적으로 'my mother'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점으로 피치 액센트를 받는다.

- (18) a. A: What are those?  
 B: Those are crawling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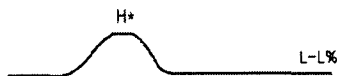


- b. A: What are those?  
 B: Those are crawling ins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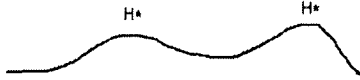


(18)의 예는 동일한 문맥에서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의 억양 실현의 차이를 보여준다. (18a)와 (18b)에서 두 문장의 초점의 영역은 'crawling things'와 'crawling insects'로 유사하며 두 명사구 모두 신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18a)의 'things'는 초점의 일부 요소이지만 액센트로 구현되지 않았고, (18b)의 'insect'는 액센트로 실현되었다. 이는 통사적 측면이나 정보구조(신정보/구정보) 이외에도 초점의 억양 실현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예가 된다. 이 문장들의 억양 구현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은 바로 어휘의 의미적 비중의 차이이다. 'things'와 같은 단어는 'insects'와 같은 일반적인 명사와는 달리 단어 자체의 의미가 비어 있으며 따라서 의미적 비중이 낮으므로 주로 액센트가 해지되어 발화된다.

- (19) a. A: What happened?  
 B: They strangled him to death.



- b. A: What happened?  
 B: They hounded him to death.



(19a)는 문장 전체가 하나의 광의 초점이 되며, 신정보로 제시된 내용어 ‘strangled’와 ‘death’에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strangled’라는 어휘개념 안에는 이미 ‘죽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eath’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death’는 정보성이 낮아 액센트 해지가 일어나게 된다. 반면 (19b)에서는 ‘hounded’라는 어휘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어휘 모두 피치 액센트로 구현된다.

- (20) A: I wonder “who”.  
 B: John read novels in his room every Monday.  
 H\* deaccenting deaccenting deaccenting

(20)의 예는 초점이 ‘John’에 위치하지만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read’나 ‘novel’과 같은 어휘항목 역시 신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어로서 액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실제 발화된 예에서는 초점인 ‘John’이 H\* 피치 액센트로 구현된 이후 피치의 급격한 하강을 보이면서 ‘read’와 ‘novel’에는 피치 액센트가 분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즉, 초점 뒤에 위치하는 내용어는 비록 신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액센트가 해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점 뒤 내용어의 액센트 해지는 중간구나 억양구의 경계가 생기기까지의 모든 내용어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며, 초점 바로 뒤의 내용어 하나에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원어민의 실제 발화 실험 외에 한국인들에게 동일한 실험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를 원어민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점 발화에서 원어민과 한국인의 액센트 분포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원어민은 문맥이나 초점 구조에 알맞게 액센트를 분포시키며 상황에 맞는 액센트 해지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였으나, 한국인 화자는 문맥과 상관없이 모든 내용어에 액센트를 부여하고 특히 액센트 해지는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인 화자는 서로 다른 문맥에서 모두 동일한 억양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인 화자를 영어 능숙도에 따라 상급과 중급,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억양 구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은 원어민 화자, 한국인 상급 화자, 중급 화자의 세 집단에서 나타난 초점 구문의 액센트 해지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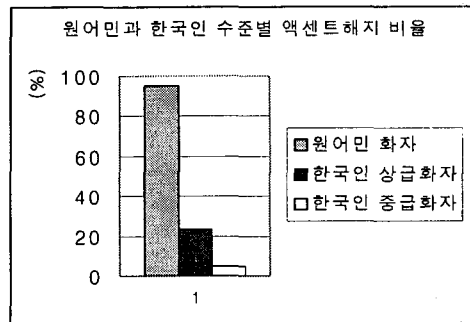


그림 1. 원어민과 한국인 상급 및 중급 화자의 액센트 해지 비율

그림 1에서 원어민 화자의 액센트 해지 비율은 평균 95%를 보여 문맥에 적절한 억양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상급 화자는 평균 23%를 보여, 5%의 액센트 해지 비율을 보인 중급 화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의 액센트 해지 비율은 평균 13%에 그쳐 대부분의 한국인이 문맥에서 요구하는 억양을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초점이 실제 발화에서 억양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H\*나 L+H\*의 피치액센트, 초점 뒤 내용어의 액센트 해지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현 양상은 문맥에 포함된 정보구조나 의미적 측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실제 발화에서의 초점 구현은 의미적·문맥적·화용적 측면이 모두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관점에서 초점의 실현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그 억양의 본질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발화 데이터를 통해 초점의 음성적 실현 양상을 관찰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통사적·의미적·문맥적·화용적 측면과 연관시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초점의 음성·음운적 구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초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 초점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문장 내의 어떤 부분이 상호간의 관심이 대상이며 대화의 중심인가를 두드러지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점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는 음성적 실현이 초점의 실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의 연구는 그 음성적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기반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초점의 음성·음운적 구현 양상을 파악하고 초점의 구현 양상에 어떤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 규칙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원어민과 한국인의 초점 발화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인 화자에게는 초점과 정보 구조가 억양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황과 문맥에 맞게 각각 서로 다른 억양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절하게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이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엑센트 해지와 같이 아직 한국인 화자에게는 생소한 억양 패턴뿐 아니라 초점과 정보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 억양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143.
- \_\_\_\_\_. 2000.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한 영어 억양 의미 분석. *음성과학*, 7.3: 109-125.
- 강선미, 옥유림, 김기호. 2003. 영어 화제와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 연구. *음성과학*, 10(4): 41-55.
- 김소희, 강선미, 옥유림, 김기호. 2002. 영어 초점 발화에서의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 비교. *음성과학*, 9(2).
- 엄혜영, 이혜숙, 김기호. 2001. 초점과 정보 구조에 따른 한국어 화자의 영어 억양 실현 양상. *음성과학*, 8(2).
- 전지현, 송재영, 이현정, 김기호. 2002. 영어 대조 초점의 발화와 인지에 관한 연구. *음성과학*, 9(4): 215-233.
- Birch, S. & Clifton, C. 1995. Focus, Accent, and Argument Structure: Effects on Language Comprehension. *Language and Speech*, 38(4): 365-391.
- Bolinger, D.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esnan, J. 1971. Stress and Syntax: A reply. *Language* 48: 326-342.
-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Cruttenden, A. 1986. *Into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Mouton.
- Gundel, J.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 (eds.) *Foc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 III: Discourse, IBM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Logic and Linguistics, 457-66.
- Gussenhoven, C. 1983. Focus, mode and the nucleus. *Journal of Linguistics*, 19: 377-419.
- \_\_\_\_\_. 1992. Sentence accents and argument structure. In I. M. Roca ed. *Thematic Structure. Its Role in Grammar*: 79-106. Berlin-New York.
-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Harvard, Mass.
- Ladd, D.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kirk, E.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접수일자: 2004. 4. 30

게재결정: 2004. 6. 15

▲ Kee-Ho Ki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Korea University  
Anam-5, Sungbuk-gu

Seoul 136-701, Korea  
Tel: +82-0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